



심은대로 거두기

송종호/동화작가

오 부들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이른 봄 튼실한 씨앗을 심는다. 사람들도 제각기 성공적인 삶의 결실을 기대하며 저마다 인생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을 통해, 보다 행복한 내일의 삶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듯 행복해지기를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 하다.

어찌 본다면, 우리의 삶이란 것은 산 너머로 뚝뚝 머리를 숨기고 있는 행복과의 숨바꼭질 일지도 모른다. 모든 이들이 갈망하는 행복, 하지만 우리의 손에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실체가 아닐까?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씨앗도 심지 않고 땀흘려 일하지도 않은 채, 허황된 탐욕만을 앞세워 파멸의 결실을 자초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대하게 된다.

왜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을 구가하려던 사람들이 그토록 허망한 종말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

남들은 제각기 분수에 걸맞는 인생의 씨앗을 심고 땀흘려 그 씨앗을 가꿔나갈 때, 그들은 제 분수를 망각한 채 과용과 허영의 씨앗을 심지는 않았는지...? 그 씨앗에서 싹이 튼 탐욕과 허영의 싹이 자라고, 사악(邪惡)과 패역(悖逆)에 무릎을 꿇어 손쉽게 인생의 탑을 쌓아 올리려 했던 것은 아닐는지...? 그런 삶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와 권세와 이익을 누릴 수 있을런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는 곧 삶의 진실을 외면하고 '모래 위에 쌓은 성' 과도 같은 것일 뿐이다. 밑바탕이 부실한 모래 위에 세운 권세나 부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들이 쌓아올린 권세와 부와 이익의 실체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는 날, 서슬 푸른 사정의 칼날은 그 밑동을 잘라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 도처에서 그 같은 비리와 부정과 탈법으로 인생의 탑을 쌓으려다 사정없이 칼날의 심판대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그르치고 만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 오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모르리라는 헛된 망상으로 그 같은 일들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헛된 탐욕을 꿈꾸면서, 스스로의 인생에 거짓 쪽정이의 씨앗을 심는 이들, 그들은 분명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그같은 거짓과 헛된 탐욕의 씨앗에서는, 결코 튼실한 인생의 꿈이 움틀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그런 씨앗에서 탐스러운 알곡이 열매맺기를 꿈꾸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믿음은 씨앗'이라 하였다. 생명의 영원한 '거둠'을 위해 진실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거름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고도 튼실한 결실로 안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영원한 '거둠'을 위해 진실로 믿음과 정직의 씨앗을 심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성실의 거름을 주어 정성스레 가꿔야 할 것이다.

이른 봄, 농부가 알찬 수확을 꿈꾸면서 튼실한 씨앗을 심듯이 우리 또한 제각기 삶의 결실을 꿈꾸며 자신의 뜻인 진실의 씨앗을 심어야 할 일이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밭에 심는 일,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정성껏 키워나가는 일이 아니겠는가...? **PPFK**